

이상적 인간상 추구의 君子 함의 고찰

- 《四書集註》를 중심으로 -

朴 素 鉉*

<目 次>

- | | |
|------------------------|------------------------------|
| I. 서론 | III. 庸學과 《孟子》에 나타난 군자 함의의 특징 |
| II. 《論語》에 나타난 君子觀 | 1. 《大學》: ‘有德有位’의 군자 |
| 1. 君子의 함의 | 2. 《中庸》: ‘誠’ 구현자로서의 군자 |
| 2.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君子의 특징 | 3. 《孟子》: ‘大丈夫’로서의 군자 |
| 3. ‘仁’의 실현자로서의 君子 달성방법 | IV. 결론 |

I. 서론

중국 전통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儒佛道 사상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호 교섭하는 과정에서 변화 발전해 왔다. 이는 중국 철학, 문학, 문화, 경제, 사회 등 제 방면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儒佛道에서 각각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유가는 군자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로, 도가에서는 지인(至人)으로 표현되어 각 사상의 요체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자로서 대변된다.

기존 공자의 군자관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많다. 한국에서는 1965년 정

*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종의 연구를 필두¹⁾로 대거 출현했으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공자의 군자관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자의 군자상 연구, 둘째, 군자상과 관련된 기타 영역과 관련된 사상 연구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자관을 현대 학문과 접목 응용한 연구 과제들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연구 집적에 따른 발달 양상으로 초기연구는 단순 군자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발전기에는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된 사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응용 연구까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기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 단편적으로 무수히 논의됐던 범범한 연구에서 벗어나, 주희의 《四書集註》를 중심으로 공자가 말한 군자의 함의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군자의 상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군자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四書의 각 서적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와 관련한 논쟁은 역대로 존재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이견은 분분하다. 이 때문에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주석서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주희의 《四書集註》를 저본으로 삼아 본 연구를 진행한다. 주희의 《四書集註》를 저본으로 삼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성.

학문 사상의 체계성 확립하고 주자학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며, 주희의 학술 평가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四書의 체계를 세웠다는 점이다. 四書의 체계가 있기 전에는 《大學》과 《中庸》은 본래 《禮記》

- 1) 정중, 《論文集》, 〈孔子的 思想에 나타난 理想의 人間像의 問題: 東洋의 理想의 人間像의 模索을 위한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研究〉, Vol.2, 1965. 정중,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研究: 君子論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74. 정중,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5.
- 2) 홍신기, 《論語에 나타난 君子교육의 재해석이 초등학교 전인교육에 주는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등

의 한 편명으로 존재해 있었을 뿐, 이를 독립시켜 정자의 학설을 기반으로 章節로 구분하여 四書의 체계를 편입시킨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四書라는 書目を 선별한 의미 외에 讀書의 次第로써 《大學》, 《論語》, 《孟子》, 《中庸》으로 그 체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둘째, 영향력.

주희 《四書集註》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論語》와 《孟子》의 판본들이 각각 전해져 내려오지만, 주희 《四書集註》를 기점으로 이후 四書로 판본이 많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학은 일개 학자의 학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는 한중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를 차용하기는 하였지만, 元代 과거에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칙명으로 쓰인 明 永樂 연간의 《四書大全》에 주희의 《四書集註》가 수록되었으며, 淸 康熙 연간에 간행된 《御纂朱子全書》를 통해 주자학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의 국교로 채택되면서 국교로서의 위상과 공신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人道敏於政”이란 말처럼 그 정치적 파급 효과가 컸다. 이에 주자학과 관련된 한중 중국 사상, 문화, 문학,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論語集註》를 통해 유가의 비조인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정의를 살펴보고, 학습관, 풍격론, 대인관 그리고 출세관을 통해 군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군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大學章句》, 《中庸章句》, 《孟子集註》에서 나타난 군자는 각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儒佛交涉 연구의 일환으로, 불교에서 바라본 군자의 함의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이자, 기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II. 《論語》에 나타난 君子觀

《論語》는 《論》, 《語》, 《傳》, 《記》, 《論語說》로 불렸으며, 주지하다시피 《論語》는 공자 자신이 아닌 공자 사후 그 제자들에 의해 찬술된 책으로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책이다. 하지만 《漢書·藝文志》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제자인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³⁾ 《論語》의 편찬자에 관해서는 현재도 이견이 분분하다.⁴⁾ 수많은 사람과 여러 시대를 걸쳐 이루어진 《論語》는 공자의 어록집이란 특성으로 공자의 사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아래 <표 1>에서 나와 있듯이 ‘군자’가 출현한 횟수는 《四書集註》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논어》를 통해 공자의 군자관을 살펴보고 다음 3장 소절에서 《맹자》, 《대학》, 《중용》 등에서 ‘군자’가 각각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겠다.

3) “夫子既卒，門人相與輯而論纂，故謂之論語.”，(漢)班固，《前漢書·藝文志》，卷三十，《欽定四庫全書》

4) 예를 들어, 鄭玄은 仲弓, 子游, 子夏 등이 편찬한 것이라 말하였으며, 柳宗元은 曾子의 제자가 마지막 편찬 책임을 맡았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程子は 여러 제자 중 유독 ‘子’로 존칭한 사람은 曾子와 有子 뿐이었기에 그들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처럼 《논어》 편찬자에 관한 이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판본 역시 여러 판본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서한 시기에 존재했던 《논어》의 주요 판본에는 《魯論語》, 《齊論語》, 《古文論語》 3 판본이 있었다. 《魯論語》는 총 20편으로 1973년 河北 定州 西漢 中山 懷王 劉修墓 출토된 죽간본 《論語》가 이에 속하며, 노나라에서 유행했던 판본이다. 《齊論語》는 제나라에서 유행했던 판본으로 총 22편이다. 《古文論語》는 한 景帝 말년, 魯恭王이 공자의 집을 허물 때 나온 책으로 고문으로 쓰여있다는 특징이 있는 판본으로 총 21편이다. 이 판본은 《魯論語》와 순서도 다르고, 640여 글자가 앞 두 판본과 다르다. 이후, 출현한 판본은 《張侯論》이다. 이는 서한 말 安昌侯 張禹 元帝 때 太子太傅가 역임할 때 칙명을 받아 태자에게 《論語》를 가르치고자, 《魯論語》를 기초로 《齊論語》 내용을 더하여 20편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한 말년 정현이 《張侯論》과 《古文論語》를 합쳐 주석을 추가한 것이 바로 오늘날 유통되는 판본이다.

〈표 1〉 《四書集註》에 나타난 君子 횡수

書名	經文	注釋	합
《論語集註》	107	136	243
《大學章句》	15	9	24
《中庸章句》	34	22	56
《孟子集註》	85	64	149

* 단위: 회

1. 君자의 함의

《論語》에서 나타나는 군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첫째는 정치적 지위를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군자,
- 둘째는 덕을 이룬 군자,
- 셋째는 공자를 지칭하는 군자가 있다.

(1) 有位之稱

이는 정치적 지위를 가진 위정자(爲政者)로서의 군자(君子)를 뜻한다. 이는 《儀禮·子夏傳》의 “임금(君)은 지존이다(君, 至尊也)”에 관한 《註》에서 “천자와 제후, 그리고 경대부 땅이 있는 자 모두를 임금(君)이라 말한다”⁵⁾라 하는 것과 같다. 이 외에도 위정자로서의 군자의 의미로 쓰인 예에는 《易·師卦》의 爻辭 上六의 “大君有命”⁶⁾과 《書·大禹謨》의 “하늘 이 명을 내려주어 이에 사해를 소유하게 되고 천하의 임금이 되었다.”⁷⁾가 있다. 《論語》에서 ‘위정자’의 뜻으로 쓰인 군자의 예는 아래와 같다.

-
- 5) “天子諸侯及卿大夫有地者, 皆曰君.”, (漢) 鄭氏注, (唐) 陸德明音義, 賈公彥疏, 《儀禮注疏》, 卷十一, 〈喪服〉第十一, 《欽定四庫全書》
 - 6) “大君有命”, (魏) 王弼撰, 《周易註》, 卷一, 《欽定四庫全書》
 - 7) “皇天眷命, 奄有四海, 為天下君.”, (漢) 孔氏傳, (唐) 陸德明音義, 孔穎達疏, 《尚書注疏》, 卷三, 《欽定四庫全書》

군자가 친척들을 후대하면 백성들은 인(仁)에서 흥기하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야박해지지 않을 것이다.⁸⁾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⁹⁾

군자가 도를 배우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¹⁰⁾

위의 예문에서의 군자는 백성의 의미인 ‘小人’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위정자의 의미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成德之名

이는 덕을 갖춘 인격자를 뜻하는 군자로 공자가 이상향으로 말하고 있는 군자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論語》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 것에는 聖人, 成人, 善人, 有恆者로 나타내고 있다. 이 개념들은 덕을 갖춘 인격자라는 큰 범주 내에서는 통하지만, 개념마다 층차적 차이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聖人을 볼 수 없다면 군자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 善人을 볼 수 없다면 恆者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고, 비었는데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고, 적으면서도 많은 것처럼 한다면 한결같이 어렵다.¹¹⁾

8) “君子篤於親，則民興於仁，故舊不遺，則民不偷”，(宋) 朱子集註，《四書集註·論語·泰伯》，《欽定四庫全書》

9) “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上之風，必偃”，같은 책, 〈顏淵〉

10) “君子學道則愛人，小人學道則易使也．”，같은 책, 〈陽貨〉

11) “子曰：聖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君子者，斯可矣。子曰：善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有恆者，斯可矣。亡而爲有，虛而爲盈，約而爲泰，難乎有恆矣．”，같은 책, 〈述而〉

위의 예문을 통해 聖人은 군자를 뛰어넘는 인물로, 그리고 善人은 유향자보다 더 나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자는 성인의 아래 단계, 선인보다는 위의 단계인 賢人의 지위에 상당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한 善, 信, 美, 大, 聖, 神 6단계의 인물¹²⁾ 가운데 聖·神의 아래이자, 信, 美, 大 3부류를 종합한 인물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아름다운 덕을 지닌 사람, 대인을 포함한 종합적 인물이 곧 군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주희는 성인은 신령하고 사리에 밝아 해아릴 수 없는 인물이며, 군자는 재능과 덕망이 모두 출중함을 일컫는다고 주석하였다.¹³⁾ 아울러, 주희는 ‘才德’을 ‘體用’ 관계로도 설명하였는데 군자 역시 성인의 체용을 갖추고 있지만, 성인과 군자의 차이는 다만 “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본체에 해당되는 ‘德’이 성인만큼 크지 않고, 작용에 해당되는 ‘用’이 성인만큼 신묘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즉, 군자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덕만이 출중한 인물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¹⁵⁾

그렇다면 성인, 군자, 선인, 유향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張栻과 輔廣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張敬夫(張栻)가 말하길, 성인과 군자는 학문으로 말한 것이고, 선인과 유향자는 그 자질로써 이야기하는 것이다.¹⁶⁾

12) “曰：可欲之謂善，有諸己之謂信，充實之謂美，充實而有光輝之謂大，大而化之之謂聖，聖而不可知之謂神”，《四書集註·孟子·盡心》，《欽定四庫全書》

13) “聖人神明不測之號，君子才德出衆之名”，(明) 胡廣撰，《四書大全·論語集註大全》，卷七，《欽定四庫全書》

14) “或問：君子不器，如孔門德行之外，乃為器否？曰：若偏於德行而其用不周，亦是器。君子者才德出衆之名。德者，體也；才者，用也。君子之人，亦具聖人之體用，但其體不如聖人之大，而其用不如聖人之妙耳。”，(宋) 黎靖德輯，《朱子語類》，卷二十四，《欽定四庫全書》

15) “問：君子才德出衆之名？曰：有德而有才，方見於用。如有德而無才，則不能為用，亦何足為君子？”， 같은 책, 卷三十五

慶源 輔氏(輔廣)가 말하길, 학문이 성인에 이른다면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 군자는 비록 성인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재덕이 출중하여 그 학문 역시 완성된 것이다. 선인은 비록 반드시 학문을 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타고난 바탕이 아름다워 자연스레 선에 이르고 악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유향자는 그 타고난 바탕 역시 선인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이 또한 순수하고 견고하여 허탄과 자랑에 힘쓰지 않고 한 부분을 지켜 평생 이를 변치 않는 자이다.¹⁷⁾

이를 통해 성인과 군자는 학문 極處의 優劣差로, 善人과 有恆者는 바탕으로 구분함을 알 수 있으며, 주희 역시 이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有恆者가 성인의 입문임을 밝히고 있다.¹⁸⁾ 이상을 통해 주희는 성인을 지성과 도덕적 인격을 모두 갖춘 완전무결한 초인적 개념으로 군자를 뛰어넘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간의 층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君子 유사 개념 간의 층위

聖人 ← 君子 ← 善人 ← 有恆者

즉, 선한 자질을 바탕으로 학문으로 완성해 가는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君子’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成人’에 관해서는 《論語·憲問》에서 자로(子路)가 성인(成人)에 관해 묻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16) “張敬夫曰：聖人君子以學言，善人有恆者以質言。”，《論語集註大全》，卷七，《欽定四庫全書》
- 17) “慶源輔氏曰：學至於聖人，則造乎極而無以復加矣。君子 雖未及乎聖人，然其才德超出於衆，則其爲學，亦以成矣。善人 雖未必知學，然其資質之美，自然至於善而不至於惡；至於有恆者，則資質又有不及善人，但亦純固而不務虛誇，守其一端，則終身不易者也。”，같은 책
- 18) “愚謂有恆者之與聖人，高下固懸絕矣，然未有不自有恆，而能至於聖者也。”，《論語集註大全》，卷七，《欽定四庫全書》

공자가 말씀하시길, 장무중(臧武仲)의 지혜와 맹공작(孟公綽)의 탐내지 않음과 변장자(卞莊子)의 용맹과 염구(冉求)의 재예에 예악으로 문체를 낸다면 이 또한 성인(成人)이라 할 수 있다.

공자가 다시 말씀하시길, 오늘날 성인(成人)은 어찌 굳이 그러할 것이 있겠는가? 이익됨을 보고 옳은지 의(義)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오랜 약속에 평소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인(成人)이라 할 수 있다.¹⁹⁾

위의 예문에서 成人을 知, 不欲, 勇, 藝, 禮樂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현대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전인적 교육의 ‘全人’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知仁勇 三達德”으로 이야기할 군자의 개념과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위의 예문은 장무중의 지혜로움은 ‘窮理’의 바탕이 되어 ‘知’에 해당하며, 맹공작의 탐내지 않음은 ‘청렴’으로 ‘養心’의 바탕이 되어 ‘仁’에 해당하며, 변장자의 용맹은 ‘실천(力行)’의 바탕이 되어 ‘勇’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문에서 말하는 예악으로 문체를 낸다는 뜻은 ‘禮’로 절제하고, ‘樂’으로 융화하여 재덕이 두루 갖춰져 억지로 겉으로 내보이지 않아도 드러나 보이고, 이는 곧 ‘혼연일체’ 하여 “中正和樂”하고 이에 더 가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²⁰⁾ 이는 곧 뒤에 다시 논의될 ‘군자의 달성방법’과 상통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해당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논술하겠다. 또한, 위의 예문에서 공자는 다시 오늘날의 성인(成人)을 예로 들어 미진(未盡)하지만, 이 또한 성인(成人)이라 말할 수 있다고 자로(子路)에게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군자와 유사한 개념과는 달리 《論語》에서는 ‘소인’과 상대되는

19) “子曰：若臧武仲之知，公綽之不欲，卞莊子之勇，冉求之藝，文之以禮樂，亦可以爲成人矣。曰：今之成人者何必然？見利思義，見危授命，久要不忘平生之言，亦可以爲成人矣。” 앞의 책, 〈憲問〉

20) “言兼此四子之長，則知足以窮理；廉足以養心；勇足以力行；藝足以泛應。而又節之以禮，和之以樂，使德成於內而文見乎外，則材全德備，渾然不見一善成名之迹。中正和樂，粹然無復偏倚駁雜之蔽，而其爲人也亦成矣。” 같은 책, 〈憲問〉

군자로 다음과 같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편안히 거처할 곳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²¹⁾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²²⁾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義)를 바탕 삼고, 예(禮)로 행하며, 겸손으로 나타내며, 믿음으로 이를 이루나니, 군자로다!²³⁾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義)를 으뜸으로 삼는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義)가 없다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은 용기는 있지만 의(義)가 없으므로 도적질을 한다.²⁴⁾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위로 천리(天理)에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이익에 통달한다.²⁵⁾

이때 소인은 앞에서 위정자의 상대가 되는 백성의 개념이 아닌 부덕한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의 분기점은 무엇인가? 이는 곧 군자와 소인이란 天壤之別이지만 단 ‘義’와 ‘利’라는 一念之差에 의하여 나뉘게 되는 것이다.

공자에게 ‘義’란 “見義不爲, 無勇也.”(《論語·爲政》), “聞義不能徙”(《論語·述而》), “主忠信, 徙義, 崇德也.”(《論語·顏淵》)과 같이 ‘行’의 기준점이 된다. 이 때문에 군자는 누추한 ‘九夷’지역에 사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

21) “子曰: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 같은 책, 〈里仁〉

22) “子曰: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같은 책, 〈里仁〉

23) “子曰: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遜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같은 책, 〈衛靈公〉

24) “子曰 君子義以爲上, 君子有勇而無義, 爲亂; 小人有勇而無義, 爲盜.”, 같은 책, 〈陽貨〉

25)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 같은 책, 〈憲問〉

였고,²⁶⁾ ‘義’에 배치되지 않은 일이라면 당시 널리 유행한 풍습도 따랐던 것이다.²⁷⁾

주희 또한 이를 ‘義’를 “事之宜也”(《論語·學而》), “天理之所宜”(《論語·里仁》)로 주석하여 ‘당위(當爲)’의 개념을 부각시켰다. 반면에 ‘利’란 “人情之所欲”(《論語·里仁》)이라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자는 ‘義’, 즉 ‘天理’를 따르기 때문에 나날이 高明해져 ‘上達’ 하는 것이며, 소인은 ‘人欲’을 따르기 때문에 나날이 착한 본성이 가려져 ‘下達’하게 된다고 주희의 주석은 말하고 있다.²⁸⁾ 이처럼 군자와 소인은 행위의 기준점이자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 방면에서 드러나는 그 양상이 정반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군자와 소인의 죽음 역시 각각 ‘終’과 ‘死’로 달리 표현한 것이다.²⁹⁾ 이는 곧 공자의 春秋筆法에 해당하는 一字褒貶이다.

(3) 指孔子之稱

이는 제자들이 덕을 갖춘 공자를 지칭하는 존칭사로의 의미로 쓰인 군자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논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의(儀) 땅을 지키는 사람이 뵈기를 청하여 말하길, 군자가 이곳에 오면 만나지 않은 적이 없다. 공자를 모시는 이가 뵈게 헤드리자, 만나 뵈고 나오며 말하길, 그대들은 어찌 공자께서 벼슬 잃은 것을 걱정하는가? 천하가 무도한 지 오래다. 하늘이 장차 공자를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³⁰⁾

26) “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같은 책, 《論語·子罕》

27) “程子曰: 君子處世, 事之無害於義者, 從俗可也, 害於義則不可從也.”, 같은 책, 《泰伯》

28) “君子循天理, 故日進乎高明; 小人徇人欲, 故日究乎汙下.”, 같은 책, 《憲問》

29) “程子曰: 君子曰終, 小人曰死, 君子保其身以沒, 爲終其事也.”, 같은 책, 《泰伯》

30) “儀封人請見曰: 君子之至於斯也, 吾未嘗不得見也. 從者見之. 出曰: 二三者何患於喪乎? 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 같은 책, 《八佾》

공자(君子)는 감색(紺)과 검붉은 색(緋)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지 않고,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지 않으셨다.³¹⁾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의 도에는 3가지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인자(仁者)는 근심하지 않고, 지자(知者)는 미혹되지 않고, 용자(勇者)는 두려워하지 않는다.³²⁾

위의 예문의 군자는 제자를 비롯한 타인이 공자를 덕을 갖춘 자로서의 존칭사로서 지칭하였으며, 마지막 예문에서는 공자 자신은 스스로 군자로 자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군자의 함의를 살펴보았을 때, 군자는 크게 정치적 의미와 내면적인 덕을 함양한 인격자로서의 군자의 의미로 대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자 이전에는 군자의 의미가 정치적 지위로서 자주 인용되었지만, 공자에 이르러서 내면적 덕을 강조한 인격자로서의 군자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君자의 특징

앞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군자와 소인의 분기점은 ‘義’이며, 이는 곧 ‘務本’으로 군자의 특징을 개괄할 수 있다. 이때 ‘本’은 아래 각 절의 학문, 군자의 풍격론, 대인관, 처세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 있다.

(1) 학습관: 爲己之學 (反求諸己)

《논어》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학습으로 시작해서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즉 ‘知’ 앞으로 끝맺는

31) “君子不以紺緋飾, 紅紫不以爲褻服.”, 같은 책, 〈鄉黨〉

32) “子曰 君子道者三, 我無能焉,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 같은 책, 〈憲問〉

다. 이에 《논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중점은 바로 ‘학습’임을 알 수 있다. 즉, 군자는 ‘知命’하기 위해서는 ‘知禮’와 ‘知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의 덕에 해당하는 ‘仁’、‘知’、‘信’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후천적인 修學으로서의 ‘好學’이 결여되면 기질의 善變과는 반대의 不善變에 상응하는 ‘愚’、‘蕩’、‘賊’의 폐단에 빠지기 쉬우므로 학문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³³⁾

공자는 ‘有教無類’로 교육의 외연을 확대하고 주회는 교육의 필요성이 곧 선한 인간의 본성의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였다.³⁴⁾ 이에 공자는 “子以四教, 文行忠信.”(《술이》)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습을 통해 내면 덕성의 함양과 집적을 도모한 것이며, 이는 곧 언행이 곧 그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논어》에서는 언행과 관련된 군자 논의가 다수 발견된다. 해당 예문은 아래와 같다.

군자가 이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다. 군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구차함이 없어야 할 뿐이다.³⁵⁾

군자가 귀중히 여기는 도가 세 가지가 있으니 몸가짐은 사나움과 태만함을 멀리하며, 얼굴빛을 바로잡을 때는 믿음에 가깝게 하고, 말을 할 때는 비루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³⁶⁾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섬기기는 쉽지만 기쁘게 하기는 어려우니, 도(道)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을 부릴 때는 그 그릇(재목)에 맞게 한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렵지만 기쁘게 하기는 쉽다. 도(道)

33) “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知不好學, 己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 같은 책, 〈陽貨〉

34) “君子有教, 則人性可以復於善, 而不當復論其類之惡矣.”, 같은 책, 〈衛靈公〉

35) “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같은 책, 〈子路〉

36)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 斯遠暴慢矣; 正顏色, 斯近信矣; 出辭氣, 斯遠鄙倍矣, 籩豆之事則有司存.”, 같은 책, 〈泰伯〉

로 기쁘게 하지 않아도 기뻐하며 사람을 부릴 때는 완벽하기를 요구한다.³⁷⁾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행하기를 여유 있게 한다.³⁸⁾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를 모실 때 세 가지 허물이 있으니, 언급하지 않았는데 말하면 이는 조급함이고, 언급하였지만 말하지 않은 것은 숨김이요,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먼 장님이라 한다.³⁹⁾

위의 예문들은 언어와 행위는 분리된 것이 언어가 곧 행위의 기반이 되고 아울러 ‘正名’ 이후에 ‘行義’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은 문자를 통해 언어뿐만 아닌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군자의 학습 근본은 무엇일까? 군자의 학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爲人之學’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본성을 발견하고 갈고닦는 ‘爲己之學’이다. 사실상 이러한 본성의 내면 추구를 발양하는 시기는 공자 이후이다. 공자 당시에는 질박한 언어로 언행을 중심으로 실천적 측면인 ‘修己’를 강조하여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위령공〉)라 말하였다. 이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성내는 감정을 갖지 않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⁰⁾ 즉, 군자는 “君子謀道”(〈위령공〉)일 뿐이어서 이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관직이나 봉록을 근심하지 않았다.⁴¹⁾ 공자는 ‘多能’함으로 군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지만,⁴²⁾ 이는 내면적인 ‘德’에

37) “子曰 君子易事而難說也, 說之不以道不說也. 及其使人也, 器之; 小人難事而易說也, 說之雖不以道說也. 及其使人也求備焉.”, 같은 책, 〈子路〉

38) “子曰 君子는 恥其言而過其行.”, 같은 책, 〈憲問〉

39) “孔子曰 侍於君子, 有三愆, 言未及之而言, 謂之躁; 言及之而不言, 謂之隱; 未見顏色而言, 謂之瞽.”, 같은 책, 〈季氏〉

40) “人不知不溫”, 같은 책, 〈學而〉

41) “子曰 君子謀道, 不謀食, 耕也餒在其中矣, 學也祿在其中矣, 君子憂道, 不憂貧.” 〈위령공〉, “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같은 책, 〈里仁〉

비해 중시되지 않은 것일 뿐,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君子不器”(〈학이〉)이며, 〈위령공〉에서 “군자는 무능함을 병폐로 여기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병폐로 여기지 않는다(君子病無能焉, 不病人之不已知也.)”와 “군자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불리지 않음을 미워한다(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라 자신의 무능함을 경계하였다. 이처럼 자신을 돌이켜 살피고 경계하는 모습이 마치 화살을 쏘아 화살을 맞히지 못하면 자신의 과오로 되돌리는 그 양상이 이러한 군자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팔일〉에서는 “군자는 다투는 것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다툰다. 활쏘기를 할 때 상대에게 읊하고 사양하며 당에 올라가 활을 쏜 뒤에 당에 내려와 이긴 자는 읊하고, 진자는 별주를 마시니 이 다툼은 군자로구나!”⁴³⁾라고 말하고 있다.

(2) 풍격론: 蕩蕩一如

앞 소절처럼 자신의 내면을 중심으로 갈고 닦는 군자의 학문을 통해 군자의 내면적 풍격과 외형적으로 풍겨 나오는 풍모는 조급함도 태만함도 없는 내외 일치된 “蕩蕩一如”이다.

군자는 “内省不疚”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없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⁴⁴⁾ 이 때문에 “子曰 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 《술이》인 것이다. 이러한 내면 심리는 곧 “子曰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 《자로》로 나타난 것으로, 군자는 내외가 조화가 된 “文質彬彬”의 양상으로 나타난다.⁴⁵⁾ 또한, 공자는 군자를 知仁勇을 갖춘 인격자로서 각각 ‘不惑’、‘不憂’、‘不懼’로 그 내면 심리 양태를 표현하고 있다.⁴⁶⁾ 이 때문에 군자는

42) “君子多乎哉? 不多也.”, 같은 책, 〈泰伯〉

43) “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 같은 책, 〈八佾〉

44) “子曰 君子不憂不懼. ……子曰 内省不疚, 夫何憂何懼?”, 같은 책, 〈顔淵〉

45)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 같은 책, 〈雍也〉

46) “子曰 君子道者三, 我無能焉.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 같은 책, 〈憲問〉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 의기를 꺾을 수 없으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도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⁴⁷⁾

(3) 대인관: 周而不比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대인관은 “周而不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앞 소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義’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이 군자라면 ‘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소인이기에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것이 적용된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군자는 두루 조화를 이루지만 당파 짓지 않고, 소인은 당파를 짓지만 두루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⁴⁸⁾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⁴⁹⁾

군자는 다른 이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고, 다른 이의 악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⁵⁰⁾

군자는 자랑스럽게 여지지만 다른 이와 다투지 않고, 무리를 지어 어울리지만,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⁵¹⁾

위의 예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문은 같은 맥락의 예문이며, “周而不比”는 군자는 이익집단이 아닌 의리집단이기에 사욕에 따라 편당을 짓지 않고 두루 잘 지낸다. 또한 공자의 제자의 말인 曾子가 말했듯이 “君子

47)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臨大節而不可奪也，君子人與？君子人也。”，같은 책, 〈秦伯〉

48) “子曰 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같은 책, 〈爲政〉

49) “子曰 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같은 책, 〈子路〉

50) “子曰 君子成人之美，不成人之惡，小人反是。”，같은 책, 〈顏淵〉

51) “子曰 君子矜而不爭，群而不黨。”，같은 책, 〈衛靈公〉

以文會友, 以友輔仁.”(〈안연〉) 벗과의 사귀는 仁을 돕고 道로 나아가는 의리집단이 곧 군자이며, 이는 곧 세 번째 예문과 상통하는 부분이기도하다. 마지막 예문은 군자는 “內省不疚”하기에 겉으로 “莊以持己”하며, “務修己”하기에 남들에게 이를 자랑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 남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다.

(4) 처세관: ‘有道’와 ‘無道’

군자의 처세관은 “有道之世”와 “無道之世”로 나뉜다. 《논어》에 나타나는 해당 원문은 아래와 같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나라에 도가 있으면 고준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나라가 무도하면 고준하게 행동하고 말은 공손하게 한다.⁵²⁾

공자가 말씀하시길,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으로 지키며 도를 잘 행해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혼란스러운 나라에 거하지 않으며,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무도하면 숨어야 한다. 나라가 도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하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가 무도할 때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⁵³⁾

첫 번째 예문은 나라에 “道”의 유무에 따라 언행의 처세를 달리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고준한 행동은 변함없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언어를 삼가 화를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문은 출사에 관한 것으로 나라에 도가 없으면 은거하여 “獨善其身”하고 나라에 도가 행해지면 관직에 나아가 “安人”하도록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이는 군자의 “修己”에 힘쓰는 것은 중국에는 修己를 통해 安人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나라에 도가 행해져 출사에 나아감에도 자신의 무능함

52) “子曰 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 같은 책, 〈憲問〉

53)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 貧且賤焉恥也; 邦無道, 富且貴焉恥也.”, 같은 책, 〈秦伯〉

과 빈천함을 스스로 부끄러이 여겨야 함을 말하고, 나라에 도가 없음에도 일신의 명리를 위해 출사하여 부귀해짐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때문에 군자는 궁핍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그 궁핍함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固窮”할 수 있는 것이다.⁵⁴⁾ 하지만 시대적 상황도 치세이고 자신 또한 자신 또한 “修己”에 힘써 “安人”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가 갖춰지지 않으면(非禮)” 출사하지 않음을 공자는 말하고 있다.⁵⁵⁾

3. “仁”의 실현자로서의 君子 달성방법

이상 군자의 특징은 학문의 근본 자리, 군자의 내외면적인 품격,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처세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는 소인과 구별되는 군자의 “義”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본 장에서는 “無間斷” 측면에서 군자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論語》에서는 공자의 핵심사상인 “仁”과 결부지어 군자의 속성을 설명하였다.⁵⁶⁾ “仁”에 대한 정의를 다각도에서 내리지만, 〈안연〉장에서 “愛人”이라 정의 내렸다. 이는 곧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혈연관계 속에서 孝와 悌로, 군신과 벗과의 관계에서는 忠과 信으로 표현된다. 그 속성에 대해 〈里仁〉에서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라 하며, “無間斷”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공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쉼 없이 흐르는 냇물을 보며 自強不息하는 군자를 연상하였다.⁵⁷⁾ 이러한 간단(間斷)이 없는 仁의 실현자로서의 군자를 달성할 수 있

54) “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잇가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 같은 책, 〈衛靈公〉

55)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匱而藏? 求善賈而沽?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 같은 책, 〈子罕〉

56) “子曰 君子而不仁者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 같은 책, 〈憲問〉

57)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 같은 책, 〈子罕〉

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1) 博文約禮, 克己復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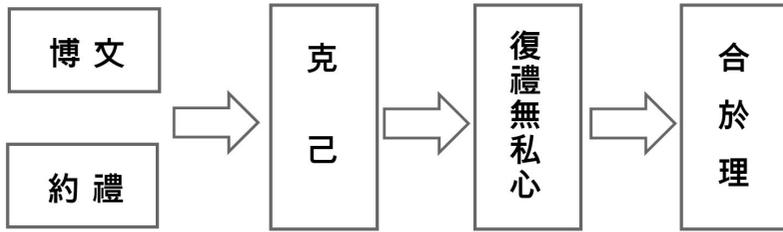
기존 다른 연구 결과나 논어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지만, 필자는 仁의 실현자로서의 군자의 달성방법으로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곧 외적인 학습과 내면의 덕, 즉 仁의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안연이 묻은 仁에 대해 공자는 “克己復禮”(《論語·顏淵》)라 답했으며, 안연은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 “博我以文, 約我以禮.”(《論語·子罕》)라 회술 하였다.

외적인 학습, 즉 詩書를 통해 博文은 격물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군자의 ‘知命’, ‘知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克己復禮”는 一身之私欲인 ‘己’를 극복하여 “天理의 節文”인 禮로 회복한다는 것은 곧 사욕에 빠져 不全한 본심을 회복하여 “本心之全德”인 ‘仁’으로 회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즉, 이는 ‘博文’을 통해 군자의 인식문제와 연결되고 ‘約禮’를 통해 군자의 실천적 측면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에 이 인식과 실천 양 측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復禮’를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안연은 이에 더 나아가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자에게 묻자 ‘四勿’로써 답하여 자신의 감각기관은 절제하여 언동 즉, 언행을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곧 앞서 살펴본 學이란 단 순히 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체득하여 行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함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無私心, 合於理

“無私心, 合於理”는 앞선 博文約禮의 과정을 한 차원 넘어서는 경지를 뜻한다. 즉, 이를 도표화 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군자 달성방법

‘無私心’은 앞서 살펴본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一己之私欲)”을 극복하여 사심이 없는 상태로 내면의 수양이며, ‘合於理’는 ‘天理’의 표상인 ‘禮’를 회복한 ‘復禮’로서 處事接物, 즉 일처리와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 그 합리주의적 적절성과 절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지는 앞서 살펴본 ‘善人’과 ‘君子’는 모두 私心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군자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천적인 학습인 ‘博文’과 ‘約禮’를 통해 ‘合於理’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선인과 차별되며 한 차원 높이 올라온 경지를 뜻한다.

‘合於理’의 의미는 “칠십이 되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⁵⁸⁾의 ‘不踰矩’의 의미이다. 이에 《論語·鄉黨》편에 나오는 공자의 일상생활 모든 것들 또한 ‘合於理’의 일례로 들 수 있다. 즉, 공자가 염원하고 추구하는 군자는 이상의 ‘博文約禮’를 통한 私心이 없는 仁이 회복된 내면적 상태와 외면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처세를 할 때 ‘合於理’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Ⅲ. 庸學과 《孟子》에 나타난 군자 함의의 특징

이상에서 《論語》를 통해 살펴본 군자의 함의 및 제반 특징을 바탕으로 四書의 나머지 책에서는 군자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

58) 같은 책, 〈爲政〉

겠다.

1. 《大學》: ‘有德有位’의 군자

《大學》 역시 저술 시기와 편찬자에 대한 이견이 많다. 《漢書·藝文志》는 공자의 칠십 제자라 하였으며⁵⁹⁾, 二程은 공자가 저술한 것이라 말하였으며⁶⁰⁾, 주희는 經 1장은 공자의 말을 曾子가 기술한 것이며, 傳 10장은 증자의 뜻을 그 문인들이 기록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⁶¹⁾. 이외에도 明 劉宗周는 공자의 손자이자 증자의 제자인 子思가 《中庸》과 함께 《大學》을 저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다⁶²⁾. 이처럼 《大學》의 저술 시기는 불분명하고 이견이 많아 차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⁶³⁾

《大學章句》에서 ‘군자’는 앞의 <표 1>에 나왔듯이 총 24번 출현한다.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大學》의 군자 함의

출처	예 문	뜻
傳之二章, 釋新民	① 是故 君子無所不用其極	(有德)有位之稱

59) “按禮經即儀禮十七篇，禮記七十子後學所記，藝文志所謂記百三十一篇，是也”，(漢) 班固, 앞의 책, 卷五十三考證

60) “大學乃孔氏遺書，須從此學，則不差.”，(宋) 朱子編, 《二程遺書》，卷二上, 《欽定四庫全書》; “修身當學大學之序，大學聖人之完書也。其間先後失次者，已正之矣.”，같은 책, 卷二十四

61) “經一章，蓋孔子之言，而曾子述之，其傳十章，則曾子之意而門人記之也。舊本頗有錯簡，今因程子所定，而更考經文，別為序次如左.”，(宋) 朱子, 《大學章句》

62) “今紬繹二書，中庸原是大學註疏，似出一人之手，……中庸一書多仲尼之言，而子思述之，則大學一書，多孔曾之言，而子思述之，又何疑焉?”，(清) 朱彝尊撰, 《經義考》，卷一百六十一, 《欽定四庫全書》

63) 이와 관련하여 출토 문헌과 비교하여 연구한 서적인 劉光勝, 《出土文獻与《曾子》十篇比較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6, 183-187쪽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예 문	뜻
傳之三章, 釋止於至善	② 詩云 瞻彼淇澳 菉竹猗猗 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僩兮 赫兮喧兮 有斐君子 終不可諠兮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瑟兮僩兮者 恂慄也 赫兮喧兮者 威儀也 有斐君子 終不可諠兮者 道盛德至善 民之不能忘也	成德(有位)之稱
	③ 詩云 於戲 前王不忘 君子賢其賢而親其親 小人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	(有德)有位之稱
傳之六章, 釋誠意	④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	成德之稱
	⑤ 小人閒居 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而后 厭然揜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己 如見其肺肝然則何益矣 此謂 誠於中 形於外 故 君子必慎其獨也	成德之稱
	⑥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	成德之稱
傳之七章, 釋正心修身	⑦ 心有不存則無以檢其身 是以君子必察乎此而敬以直之 然後此心常存 而身無不修也	成德之稱
傳之九章, 釋齊家治國	⑧ 所謂治國 必先齊其家者 其家 不可教 而能教人者無之 故君子 不出家而成教於國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	有德有位之稱
	⑨ 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暴而民從之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不從 是故 君子有諸己而後求諸人 無諸己而後非諸人 所藏乎身 不怨 而能喻諸人者未之有也 此又承上文一人定國而言 有善於己然後 可以責人之善 無惡於己然後 可以正人之惡 皆推己而及人 所謂恕也 不如是則所令 反其所好 而民不從矣 喻曉也	有德有位之稱
傳之十章, 釋治國平天下	⑩ 所謂平天下 在治其國者 上老老而 民興孝 上長長而 民興弟 上恤孤而 民不倍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	有德有位之稱

출처	예 문	뜻
傳之十章, 釋治國平天下	①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民之所好 好之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	有德有位之稱
	② 是故 君子先慎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先謹乎德 承上文不可不謹而言 德卽所謂明德 有人謂得衆 有土謂得國 有國則不患無財用矣	有德有位之稱
	③ 見賢而不能舉 舉而不能先 命也 見不善而不能退 退而不能遠 過也 命 鄭氏云 當作慢 程子云 當作怠 未詳孰是 若此者 知所愛惡矣 而未能盡愛惡之道 蓋君子而未仁者也	有位之稱
	④ 是故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 君子以位言之 道謂居其位 而修己治人之術 發己自盡爲忠 循物無違謂信 驕者矜高 泰者侈肆 此因上所引文王康誥之意而言 章內三言得失而語益加切 蓋至此而天理存亡之幾決矣	有位之稱
	⑤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鷄豚 伐冰之家 不畜牛羊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此謂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孟獻子 魯之賢大夫 仲孫蔑 畜馬乘 士初試爲大夫者也 伐冰之家 卿大夫以上 喪祭用冰者也 百乘之家 有采地者也 君子寧亡己之財 而不忍傷民之力 故寧有盜臣而不畜聚斂之臣 此謂以下釋獻子之言也	有位之稱

위의 표를 통해 《대학장구》에 나온 군자의 뜻은 크게 ‘有位之稱’과 ‘成德之稱’ 그리고 ‘有德有位之稱’으로 나뉘어 알 수 있다. 먼저, ‘有位之稱’으로서 爲政者로 쓰인 군자의 예는 ①, ③, ⑬, ⑭, ⑮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①, ③은 표면적으로는 ‘有位之稱’이지만, 이는 ‘有德’을 전제로 하는 ‘有位之稱’이다. ‘有德’이란 바꿔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자격을 뜻한다. 각 예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탕 임금의 욕조에 새겨진 명문에 이르길, 진실로 날로 새로워졌으면 나 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해야 한다.

《강고》에 이르길, 스스로 새롭게 하려는 백성을 진작시키라.

이 때문에 군자는 그 지극함을 쓰지 않은 바가 없다.⁶⁴⁾

위 예문은 전(傳)의 2장으로 ‘신민(新民)’을 해석한 부분으로, 위정자인 탕 임금과 문왕, 무왕의 ‘止於至善’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①은 그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는 탕 임금의 욕조의 명문은 곧 스스로가 새로워지려는 ‘成己’에 해당하며, 《강고》에 나타난 문왕과 무왕의 예는 ‘成物’에 해당한 것으로 각각 ‘신민(新民)’의 층위를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때, ‘신민’의 층위는 ‘成己’와 ‘成物’로 나눌지라도 모두 ‘止於至善’에 이르도록 하는 그 경지를 말하고 있다. 즉, 위정자의 덕목으로서의 신민의 근거가 되는 自新, 그리고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어 그 경지는 ‘止於至善’에 이르러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③에 해당하는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시경》에 이르길, “아! 예전의 임금을 잊지 못하리라!”, 군자(위정자)는 예전 임금이 어질게 여겼던 이들을 어질게 여기고, 친함을 친히 여기고, 소인(백성)들은 그 즐거움을 즐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긴다. 이것이 예전 왕이 세상에 없더라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⁶⁵⁾

위 예문은 전(傳)의 3장으로 ‘止於至善’의 실례를 들어 후대의 군자와 소인의 그 공효를 입은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위 예문에서

64) “湯之盤銘曰：苟日新，日日新，又日新；康誥曰：作新民；詩曰：周雖舊邦，其命維新，是故君子無所不用其極。” 앞의 책, 《大學章句》

65) “詩云：於戲！前王不忘。君子賢其賢而親其親；小人樂其樂而利其利，此以沒世不忘也。” 같은 책, 《大學章句》

말하는 군자는 前王을 이어 정치하는 위정자, 後王과 後賢을 뜻하고, 이와 상대되는 의미로 소인(小人), 즉 백성을 뜻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군자의 함의 중 위정자와 그 상대의미로서의 소인이 이에 해당한다.

즉, 위 예문은 후대의 위정자(군자)는 전왕이 닦아놓은 선정(善政)의 바탕이 되는 舊憲成章(賢)과 創業垂統(親)을 계승하는 바를 “賢其賢而親其親”으로 표현하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예전 왕이 베푸신 선정(善政)의 실제적인 혜택과 즐거움, 즉 美風良俗(樂)과 分井受塵(利)을 누리는 것으로 “樂其樂而利其利”라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전(傳)의 3장에 해당하는 ② 역시 ③의 예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成德之稱’을 나타내지만, 이는 ‘有位’의 의미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군자(有斐君子)를 평생 잊지 못한다(終不可諠兮)”고 말하는 것은 바로 ③의 ‘前王不忘’에 대응된다. 이는 군자가 ‘학문(學)’과 ‘자기 수양(自修)’를 통해 겉으로 ‘준율(恂慄)’과 ‘위의(威儀)’로 그 공효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學)’과 ‘자기 수양(自修)’은 곧 《대학》의 삼강령 중 ‘명명덕’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성들이 잊지 못함은 바로 ‘盛德至善’, 즉 ‘지어지선’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즉, ②는 ‘명명덕’의 ‘지어지선’을, ③은 ‘신민’의 ‘지어지선’을 각기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는 표면적으로는 ‘위정자’라는 일차적 의미가 있지만, 그 내면의 의미로는 위정자로서 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는 곧 ‘有德有位之稱’으로 군자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주목할 점은 章節의 主旨에 따라 나타난 ‘君子’의 함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①~③은 삼강령을 해석하는 부분으로 이에 나온 군자는 비록 표면적으로 ‘有位之稱’과 ‘成德之稱’을 나타내지만 이는 곧 ‘有德有位之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④~⑦은 팔조목 중 성의(誠意)와 정심(正心), 수신(修身)을 해석하는 부분으로 ‘수기(修己)’하는 군자로 ‘成德之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⑧~⑫는 팔조목 중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해석하는 부분으로 ‘치인(治人)’하는 군자로 ‘有德有位之稱’으로, 즉 위정자의 지위에 걸맞은 위정자의 자격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成德之稱’의 군자가 주를 이루었던 《논어》와는 달리 《대학》에 나타난 ‘君子’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위정자의 뜻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은 ‘教人’ 하기 위해 저술된 책으로,⁶⁶⁾ 이에 나타난 군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하는 위정자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3강령 8조목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즉, 《대학》에 나타난 ‘君子’는 ‘有德有位’의 의미로 쓰인, 보다 엄밀히 말하면 “聖人之德, 聖人之位”를 말한다. 이는 책의 집필 목적과 부합된다.

2. 《中庸》: ‘誠’ 구현자로서의 군자

《중용》 역시 저술 시기와 저작자에 대한 정론이 없지만, 대체로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사마천 《史記》에서 “子思가 중용을 서술하였다”⁶⁷⁾는 기록 이후 鄭玄, 沈約, 孔穎達, 李翱, 二程, 朱熹 모두 전국 시기 자사의 저술이라 말한다. 하지만 구양수는 자사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⁶⁸⁾ 王柏은 자사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저술한 것이라 하였다.

《중용장구》에서 언급된 ‘군자’는 〈표 1〉에 나왔듯이 총 56회이다. 이 중, 子思의 군자는 ‘수신(修身)’과 ‘무본(務本)’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강조하는, 즉 ‘成德之稱’의 군자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교육을 강조하는 법(教人之法)으로서 초학자의 덕행을 닦아가는 관문(初學入德之門)이라면, 중용은 성인과 성인이 도학을 전수하는(道學傳授) 도통에 관한 경전

66)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 出於其閒, 則天必命之, 以為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 以復其性, 此伏羲神農黃帝堯舜, 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職典樂之官, 所由設也. 及周之衰, 賢聖之君不作, 學校之政不脩, 教化陵夷, 風俗頹敗, 時則有若孔子之聖, 而不得君師之位, 以行其政教, 於是獨取先王之法, 誦而傳之, 以詔後世.”, 같은 책, 《大學章句·序》

67) “子思作中庸”, (漢) 司馬遷撰, 《史記·孔子世家》, 卷四十七, 《欽定四庫全書》

68) “子疑其傳之謬也”, (宋) 歐陽修撰, 《文忠集·問進士策》, 卷四十八, 《欽定四庫全書》

(道統之書)이다. 예를 들어,

① 도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 떠난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심하고 삼가며(戒愼),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다(恐懼).⁶⁹⁾

②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하게 일어나는 생각보다 더 또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만이 아는 마음(獨)을 삼가는 것이다.⁷⁰⁾

③ 군자는 현재의 위치에서 행할 뿐,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⁷¹⁾

④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공경히 받들되 학문으로 말미암으니, 넓고 큰 것을 다하되 정밀하고 정미한 것을 다하며, 높고 밝음을 지극히 하되 중용으로 말미암으며,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며, 두터운 바를 돈독히 하되 예를 높이는 것이다.⁷²⁾

위의 예문에서 나와 있듯이 도학을 전승하려는 군자는, 위와 같은 공부를 갖춰야 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짐을 강조하는 군자의 학문 처이다. ‘항상’ 즉, 간단(間斷) 없이 유행하는 천리(天理)처럼 수신(修身) 공부를 ‘계신공구(戒愼恐懼)’하여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 수 있는 그 마음자리(獨)를 삼가하여 추호의 어긋남도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부 는 마치 공리공담을 논하는 듯하지만, 이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해야함을 예문③에서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부는 이미 앞서 《대학》에서 강조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바탕으로

69) “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宋) 朱子, 앞의 책, 《中庸章句》

70) “莫見乎隱，慕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같은 책, 《中庸章句》

71) “君子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같은 책, 《中庸章句》

72) “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致廣大而盡精微，極高明而道中庸，溫故而知新，敦厚以崇禮。”，같은 책, 《中庸章句》

닭아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⁷³⁾ 이는 곧 《중용》의 첫머리이자 주지인 아래 예문에 합치된다.

하늘이 명하여 내려주신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본성의 자연대로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道)를 품절하여 닭는 것을 가르침(教)이라 한다.⁷⁴⁾

도학 전수의 본원은 곧 하늘이 명한 성품에 있기에, 도통의 근본이 바로 성품을 밝히는 데에 있음을 말하였고, 성품은 다시 일상의 도로 구현되고 성현은 이를 기조로 교육을 배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용은 도통 전수의 경전이라 말한다.

따라서 《중용》의 군자는 내 존재 밖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품부 받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性) 즉, ‘삼달덕(三達德: 知仁勇)’의 자연대로 따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이치(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가 곧 도(道)이며, 이는 ‘오달도(五達道) 즉 오륜(五倫), 인간사회의 제도에 반영된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는 모두 본성의 덕으로서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皆性之德而具於心)” 위 예문①에서 말한 것처럼 한순간도 도를 떠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인간사회의 제반 문제에 도는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다. 이 때문에 마음공부인 ‘존양성찰(存養省察)’로 예문①의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예문②의 ‘신독(愼獨)’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마음공부’를 강조한다고 이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예문④의 언급처럼, 군자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밝은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바, 이는 중용에서 말한 誠身을 위한 明善에 상당한다. 이는 곧 《논어》에서 말한 ‘박문(博文)’ ‘약례(約禮)’를 통해 ‘克己復禮’하여

73) “故君子不可以不修身。思修身，不可以不事親；思事親，不可以不知人；思知人，不可以不知天。” 같은 책, 《中庸章句》

74)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脩道之謂教。” 같은 책, 《中庸章句》

“無私心, 合於理”로 완성해 가는 ‘군자’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앞의 《논어》와 《대학》에서 말하는 ‘君子’와 차이점은 《논어》에서는 ‘聖人’과 ‘君子’가 유사하지만, 그 층위는 분명하여 ‘聖人’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生而知之)”와 같은 가장 지극한 위치를 점하고, 후천적 노력을 통해 ‘學聖賢’으로서의 ‘군자’를 구별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외에도 《중용》의 ‘君子’는 공자의 ‘聖人’ 개념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용이란 바로 도통의 전수를 위해 쓰인 책이기 때문이다.⁷⁵⁾ 그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⑤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여 은둔한 생활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는 오직 성인만이 능할 수 있다.⁷⁶⁾

《중용》의 군자는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의 성자를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중용장구》 제2장에서 말한 “君子中庸”이 제6장 舜의 大知, 제8장 안연의 仁, 제10장 자로의 勇을 종합한 최고의 성자로 제11장에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책의 主旨인 ‘中庸’의 구현자이자 실천자로 말할 수 있다. 이때 ‘中庸’이란 주희 《중용》 序說에서 정의 내렸듯이, “中이란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음을 명명함이며, 庸이란 평범하고 떳떳함이다”⁷⁷⁾. 예문⑤는 《중용》 제11장 경문의 마지막 경문으로 “中庸之成德”이라 주희는 주석하고 있다.

《논어·학이》 첫머리 경문은 ‘공부의 次第’를 나타내는 것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學而時習)”은 공부의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자신의 공부 완성인 ‘成己’에 상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有朋自遠方來”면 공부의 두 번째 단계로, 자신에게 물으러 공부하고자 찾아온 이들을 공자는 謙讓으로

75) “中庸, 何爲而作也? 子思子 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같은 책, 《中庸章句·序》

76) “君子依乎中庸, 邇世不見知而不悔, 唯聖者能之.”, 같은 책, 《中庸章句》

77) “中者, 不偏不倚, 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 같은 책, 《中庸章句·序》

벗(朋)으로 지칭하여 타인의 공부에까지 미쳐가는 ‘成物’에 이르게 된 것이다⁷⁸⁾. 마지막 공부의 단계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人不知而不愠)”이다. 이는 나를 알아주고 이를 따르는 ‘朋’ 외에 사람들이 곧 “人不知”의 ‘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學而時習의 成己와 有朋自來의 成物の 종합체이자 궁극의 단계이다. 위의 “人不知”는 곧 《中庸》의 “遯世不見知”에 대응되며, ‘不愠’은 ‘不悔’에 대응된다. 이때 不悔 역시 過不及이 없는 중용의 실체이자 궁극의 단계이다. 이를 통해 《논어》의 군자가 《중용》의 聖인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용》 2장의 “君子中庸”의 군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聖인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논어·학이》의 군자는 《중용》의 ‘성인(聖人)’ 의미에 대응되어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용》의 군자는 성인의 역할과 위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⑥ 군자의 도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費), 그 본체는 보이지 않는다(隱).⁷⁹⁾

⑦ 진실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니, 진실하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진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⁸⁰⁾

⑧ 오직 천하에 지극히 진실한 사람만이 천하의 큰 법을 다스리며,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우며, 천지의 화육을 알 수 있다. 이 어찌 의지하는 바 있겠는가!⁸¹⁾

78) “今有朋自遠方來，既足以驗吾所學之是。”，(明) 呂柟撰，〈四書因問〉，卷三，〈欽定四庫全書〉，“既有得人自信從同類之朋，自遠方而來以求教，誨一人之學，廣為衆人之學。一人之說廣為衆人之說，中心油油然不倦，不亦樂乎？”，(清) 愛新覺羅·玄燁欽定；(清) 陳延敬等編撰，〈日講四書解義〉，卷四，〈論語〉上之一，〈欽定四庫全書〉

79) “君子之道，費而隱。”，같은 책，〈中庸章句〉

80) “誠者，物之終始，不誠，無物。是故君子誠之爲貴。”，같은 책，〈中庸章句〉

81) “唯天下至誠，為能經綸天下之大經，立天下之大本，知天地之化育，夫焉有所倚。”，같은 책，〈中庸章句〉

위 예문 ⑥은 ‘費隱’으로 군자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 ‘費’는 작용의 광범위함을, ‘隱’은 본체의 隱微함을 뜻한 것으로, ‘道’를 體用 관계로 설명한 것이다.⁸²⁾ ⑦의 ‘誠’은 ‘實理’로 ‘費’와 ‘隱’을 관류하고 있다. 이에 만물의 시작과 끝이며, 일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⑧은 성인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인(聖人)이란 道(天理)를 구현하는 자로서 道(天理)에 합치된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天命之謂性”), 그 본성의 자연스러움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道를 행하는 것이지만(“率性之謂道”) 우리는 형기(形氣)로 인해 “智愚粹駁”의 차이가 생겨나고, 자신의 안에 이미 내재해 있는 ‘性’을 알지 못하고 도를 실천할 수 없다. 이에 이들을 禮로 品節하여 道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修道之謂教”)이라 말하고 있다.

성인과 군자는 엄밀히 말하면 ‘선천’적 天性으로 완성한 자와 ‘후천’적 교육으로 완성된 자로 구분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는 “선천적으로 진실하면 밝고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밝으면 진실하여진다.(誠則明, 明則誠)”(제21장) 이로 보면 후천적 교육에 의한 군자는 선천적 천성으로 진실한 성인과 대등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자의 함의는 《중용》에 이르러서 《논어》와 《대학》의 군자 함의보다 더 내면화되고 ‘성인’의 의미까지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중용 저술의 목적인 도통전수에 합치되는 서술임을 알 수 있다.

3. 《孟子》: ‘大丈夫’로서의 군자

《맹자》의 저술 시기와 저작자 역시 다른 四書와 같이 이견이 분분하다.⁸³⁾ 《맹자집주》에서 언급된 ‘군자’는 총 149회이다. 이미 앞서 다룬

82) “費, 用之廣也; 隱, 體之微也.”, 같은 책, 《中庸章句》

83)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맹자 자신이 생전에 완성한 작품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東漢 趙岐와 南宋 朱熹가 있으며, 두 번째는 맹자 제자인 萬章, 公孫丑 등이 맹자 사후에 완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

군자의 의미 중 대부분 위정자로서 덕을 지닌 “有位有德之稱”으로 쓰인다. 《맹자》의 군자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義理’에 의한 “호연지기”를 갖춘 “대장부”의 의미로서의 ‘군자’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맹자가 말하길, 군자가 다른 평범한 이와 다른 까닭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으로 마음을 간직하고 예로 마음을 간직한다.⁸⁴⁾

위 예문은 먼저 마음가짐에 군자의 남다른 점이 있다. 군자는 곧 “存養成德”을 강조한 것으로,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임과 동시에 衆人과 군자가 다른 점은 바로 仁과 禮로 마음을 보존하여 항상 ‘敬’함을 말한다. 맹자는 ‘仁’을 “사람의 마음(人心)”으로, ‘義’를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人路)”로 명명하였다. 이때 인이란 마음의 덕(心之德)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래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이를 자각하지 못하여 ‘人心’이란 글자로 만물을 응대하는 주재자로 강조하고, ‘의’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잠시라도 이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⁸⁵⁾ 특히, 맹자는 당시 ‘利’를 중시했던 전국 시기에 공자의 仁 사상을 기반으로 ‘義’를 더하여 ‘義理’를 강조하였다.

맹자의 ‘義理’에 입각한 마음가짐의 목적은 그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의리를 기조로 한 ‘浩然之氣’의 함양을 통해 대장부로서의 기상으로 군자를 강조하고 있다.

‘호연지기’ 그 자체는 “至大至剛”하여 천지에 충만한 기상이다. 따라서 맹자는 이의 함양을 위해 의리와 도(其爲氣也, 配義與道)를 중시한 ‘養氣’

은 대표적으로 唐 韓愈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맹자와 萬章, 公孫丑가 함께 맹자 생전에 지은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사마천이 있다.

84) “孟子曰：君子所以異於人者，以其存心也。君子以仁存心，以禮存心。”，(宋) 朱熹, 앞의 책, 《孟子集註·離婁下》

85) “仁者心之德，程子所謂心如穀種，仁則其生之性，是也。然但謂之仁，則人不知其切於己，故反而名之曰人心，則可以見其爲此身酬酢萬變之主，而不可須臾失矣。義者行事之宜，謂之人路，則可以見其爲出入往來必由之道，而不可須臾舍矣。”，(明) 胡廣撰, 앞의 책, 《孟子集註·告子上》

이다. 따라서 “의리와 도”를 갖추기 위해 맹자는 “학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라”⁸⁶⁾고 말하여 存心을 강조했다. 이러한 存心은 이처럼 道義를 고수하여 호연지기를 함양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存心의 대상은 바로 仁義로써 부귀와 관직으로도 이를 바꿀 수 없으며⁸⁷⁾, 이에 맹자는 당시의 권력가였던 쑤나라 韓씨 가문과 魏씨 가문을 하찮게 여긴 것이다⁸⁸⁾. 이러한 모습은 곧 대장부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대장부는 어떠한 사람인가?

천하의 광활한 집에 거하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바로 서며, 천하의 큰 도를 실천하여 뜻한 바를 이룬다면 백성들과 함께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홀로 그 도를 실천하여 부귀도 그 마음을 분탕질하지 못하며, 빈천도 그 마음을 옮겨가도록 하지 못하며, 위세와 압력에도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를 대장부라 한다.⁸⁹⁾

위 예문에서 말한 천하의 광활한 집이란 ‘仁’이며, 천하의 바른 자리는 ‘禮’이며, 천하의 큰 도는 ‘義’를 말한다. 이는 곧 앞서 언급한 仁義를 마음에 간직한 存心과 같은 의미이며, 부호의 상징으로 말한 韓魏之家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은 바로 富貴, 貧賤, 威武와 같은 仁義 외의 외부적인 요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드높은 기상과 일치한다. 이는 맹자가 추구했던 道義를 바탕으로 한 대장부의 모습임과 동시에 맹자의 인품과도 일치한다. 해당 원문을 보면,

86)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宋) 朱熹, 앞의 책, 《孟子集註·告子上》

87) “彼以其富, 我以吾仁; 彼以其爵, 我以吾義.”, 같은 책, 《孟子集註·公孫下》

88) “孟子曰: 附之以韓魏之家, 如其自視欲然, 則過人遠矣.”, 같은 책, 《孟子集註·盡心上》

89)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與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같은 책, 《孟子集註·公孫卅下》

수 길이나 되는 높은 집과 수척의 서까래로 지은 집을 내 뜻한 바대로 얻는다 할지라도 이를 하지 않으며, 사방 한 척의 음식이 내 앞에 있고 시중 두는 시첩 수백 명이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풍악 즐기며 술 마시고 말을 내달려 사냥하고 뒤에 나를 따르는 천 승의 가마가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내 하지 않은 바요, 내게 있는 것은 모두 옛 제도이니 내 어찌 저를 두려워하겠는가?⁹⁰⁾

위의 예문은 부귀의 극치를 대변한 것이다. 고대광실과 같은 집은 부를 상징하여, 대장부가 거하는 “천하에서 가장 넓은 집인 仁”과도 그 층위가 다르며, 사치스런 음식과 시첩은 마음을 현혹하는 食色이며 음주와 사냥은 쉬이 방탕한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들로 義를 실천하고 禮로 절제하는 옛 성현의 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른 대장부로서의 군자와 부귀를 탐닉한 소인으로 나뉘는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맹자는 바로 대장부가 거처하고 행했던 옛 성현의 제도인 仁義禮이다. 그 어떠한 외세에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대장부 지향의 군자인 썸이다. 이는 공자가 동산에 오르면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적게 보인다고 말한 그 기상과도 같은 것이다.⁹¹⁾ 나의 경계와 조예가 높을수록 반대로 나의 지향과는 다른 세계는 낮게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상은 곧 대장부의 기상이요, 바로 호연지기이다. 이처럼 義理에 기반을 둔 호연지기는 곧 “스스로 돌이켜보아 끝으면 수천만인 이라도 이에 맞서 나아간다”⁹²⁾고 말한 것과 상통하는바 그 핵심은 바로 의리에 의한 정직, 곧 ‘올바름(縮)’이다. 이러한 기상은 바로 하루아침에 단박에

90) “堂高數仞，椽題數尺，我得志，弗爲也；食前方丈，侍妾數百人，我得志，弗爲也；般樂飲酒，驅騁田獵，後車千乘，我得志，弗爲也，在彼者，皆我所不爲也，在我者，皆古之制也，吾何畏彼哉。”，같은 책, 《孟子集註·盡心下》

91) “孟子曰 孔子登東山而小魯，登太山而小天下，故觀於海者，難爲水；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같은 책, 《孟子集註·盡心上》

92) “自反而縮，雖千萬人，吾往矣。”，같은 책, 《孟子集註·公孫丑上》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축적하는 데서 자연 발생하는 바(集義所生)”⁹³⁾로 이것이 곧 存心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연지기를 갖춘 대장부는 맹자에서는 곧 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군자의 즐거움과 걱정을 통해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 두 번째 즐거움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곧 仁義禮에 거하고 이를 실천하기에 그와 같은 즐거움만이 있을 뿐이요, 걱정이란 남들보다 부귀와 영달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순임금도 사람이요, 나도 같은 사람이 거늘, 순임금처럼 천하의 법칙이 되지 못할까를 걱정하는 것이다.⁹⁴⁾ 이때 천하의 법칙이란 위정자로서의 위치를 말함이 아니요, 바로 성인으로서 《중용》에서 말한 ‘繼天立極’을 뜻한 것으로 이 역시도 仁이 아니면 하지 않고 禮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즉, 군자의 걱정과 즐거움은 곧 ‘仁義禮’에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 곧 대장부의 삶이요, 호연지기의 기풍으로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맹자의 학술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즉, 정자가 평한 맹자의 공은 수도 없이 많지만, 공자가 ‘인’이란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을 ‘義’를 추가하여 ‘인의’에 대해서 말하였고, 공자는 ‘志’에 대해 논했다면 맹자는 ‘養氣’라는 개념을 들어 이전 성현들이 밝히지 않았던 부분을 밝혀⁹⁵⁾ 후대 사람들의 미진한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양시(楊時)가 말한 《맹자》의 주지는 마음공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⁹⁶⁾.

93)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같은 책, 《孟子集註·公孫丑上》

94) “是故, 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乃若所憂則有之, 舜人也, 我亦人也,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由未免爲鄉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 若夫君子所患則亡矣, 非仁無爲也, 非禮無行也. 如有一朝之患, 則君子不患矣.”, 같은 책, 《孟子集註·離婁下》

95) “程子又曰: 孟子有功於聖門, 不可勝言. 仲尼只說一箇仁字, 孟子開口便說仁義; 仲尼只說一箇志, 孟子便說許多養氣, 出來只此二字, 其功甚多.”, “又曰: 孟子性善養氣之論, 皆前聖所未發.”, 같은 책, 〈孟子序說〉

96) “楊氏曰: 孟子一書, 只是要正人心, 教人存心養性, 收其放心.”, 같은 책, 〈孟子序說〉

IV. 결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통속적으로나 문화 학술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군자(君子)’이다. 특히, 중국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꼽히는 군자는 사상, 문학, 예술, 정치, 사회 등 제 영역에서 사용되지만, 그 본래 함의와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군자’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공자의 어록집인 《논어집주》에 나타난 ‘군자’의 의미와 군자의 구체적인 특징, 그리고 이러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서집주》의 나머지 다른 문헌에서 각기 어떻게 군자의 의미가 구현되는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군자의 함의는 四書 각 책의 집필 목적과 그 책의 主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군자는 각 책에서 추구하는 유가의 이상적인 인간상 내지 정치사상을 구현하는 위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논어》에 나타난 군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有位’와 ‘成德’으로 나뉜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와의 문답을 기록한 《논어》의 특성으로 공자를 지칭하는 군자도 나타난다. 이 역시 ‘成德者’로서의 공자를 지칭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사서에서도 위의 기본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각 사서의 주지와 특징에 따라 군자의 구체적 함의는 각기 달리 나타난다.

《논어》에 나타난 군자는 군자의 원형으로서 공자의 핵심사상인 ‘仁’의 실천자로서의 군자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군자의 첫 번째 특성으로 살펴본 학습관은 ‘爲己之學’은 곧 군자가 되는 방법으로서의 ‘博文約禮’의 기본 핵심 사상을 이룬다. 즉, 이는 군자의 특징인 ‘務本’의 특징이 ‘反求諸己’의 형태로 나타나 군자의 학문을 하는 군자의 내면적 마음의 양상이 “蕩蕩一如”의 공효처를 이룸과 동시에 군자의 威義에도 드러난다. 아울러 이러한 개인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처세하는 ‘應事接物’에서

도 각각 “無私心, 合於理”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군자의 달성방법으로서 知行的 博文約禮를 통해 一己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한 ‘克己’를 통해 無私心の 復禮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학》에 나타난 군자 함의의 특징은 ‘入德之門’으로서의 格物致知를 바탕으로 修己治人の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춘 이를 군자로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과 始終을 이루는 《중용》에 나타난 군자는 ‘道統之傳’이란 主旨에 따라 군자는 다른 사서에 비해 보다 내면화되고 聖인과 대등한 의미로서 나타나고 이 중심은 聖人の ‘中庸’과 ‘誠’, ‘費隱’, ‘繼天立極’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맹자》에 나타난 군자는 맹자가 주창했던 ‘仁義’를 기반으로 한 호연지기를 갖춘 대장부로서의 군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통해 四書에 나타난 군자는 공자의 어록집인 논어에서 군자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외 四書에 나타난 군자는 각 책의 주지와 저자가 강조했던 학술사상이 집약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 (漢)班固, 《前漢書》, 《欽定四庫全書》
- (漢)孔氏傳, (唐)陸德明音義, 孔穎達疏, 《尚書注疏》, 《欽定四庫全書》
- (漢)司馬遷撰, 《史記》, 《欽定四庫全書》
- (漢)鄭氏注, (唐)陸德明音義, 賈公彥疏, 《儀禮注疏》, 《欽定四庫全書》
- (魏)王弼撰, 《周易註》, 《欽定四庫全書》
- (宋)黎靖德輯, 《朱子語類》, 《欽定四庫全書》
- (宋)歐陽修撰, 《文忠集》, 《欽定四庫全書》
- (宋)朱子, 《四書集註》, 《欽定四庫全書》
- (宋)朱子編, 《二程遺書》, 《欽定四庫全書》
- (明)胡廣撰, 《四書大全》, 《欽定四庫全書》

(明)茅坤撰,《唐宋八大家文鈔》,《欽定四庫全書》

(清)陳延敬等編撰,《日講四書解義》,《欽定四庫全書》

(清)朱彝尊撰,《經義考》,《欽定四庫全書》

刘光胜,《出土文献与《曾子》十篇比较研究》,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definition of “Junzi (君子)”, which people commonly use, and the connotations of Junzi in the “Interlinear Analysis and Collected Commentaries on the Four Books (四書集註)”. As a result, the connotation of Junzi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urpose of writing for every Four Books and their primary principal. Thus, it can tell that Junzi appears as an ideal human image of Confucian scholar pursued in each book, or a politician who embodies political ideas.

Junzi in “Confucian Analects” is the original form of Junzi; the characteristics of Junzi appears as the person who realizes “benevolence”, the core idea of Confucius. The features of the connotation of Junzi in “Great Learning” describes Junzi as a person with the virtue that a politician who can reform others based on the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 as “a door to enter the virtue.” On the contrary, Junzi from “Doctrine of the Mean”, which forms a line with “Great Learning”, internalizes through the primary principal, “Tradition of Moral Philosophy”, and signifies same meaning as a saint. Junzi from “Mencius” is described as a man with big morale based on “virtuousness and righteousness.” Hence, the significance of Junzi is expressed with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ideals each aims for; from this point, Junzi implies different meaning depending on the person’s thoughts and ideologies.

Key Words : 사서(Four books), 유가(Confucianism), 군자(Junzi), 사상과 문화(Thought and culture), 주희(Zhu-xi)

